

02

세계가 주목한 K-세정의 표준, 강남**- 세계은행(World Bank) 초청 글로벌 지식공유 세미나 현장 -**

프롤로그: 강남으로 향하는 세계의 시선

2025년 11월, 강남구청에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세계은행(World Bank).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이 한국의 선진 행정을 배우러 오는데, 그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모델이 바로 ‘강남구의 부동산 및 세무 시스템’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견학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의 차관급 인사를 포함해 중국, 필리핀, 피지 등 6개국에서 도시 개발과 토지 제도를 책임지는 핵심 관료 40여 명이 방문하는 ‘지식 공유의 장’이었습니다. 강남구 세무관리과와 부동산정보과는 즉시 협업 팀을 꾸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시스템이 세계 무대에서는 어떻게 비칠지, 우리의 ‘일상’이 그들에게 계는 ‘혁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제1막: 디지털로 연결된 땅과 세금

11월 18일 오후 3시, 강남구청 1층 로비는 각국의 언어와 통역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종현 세무행정팀장과 남호림 주무관은 대형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브리핑의 핵심은 ‘연결’과 ‘정확성’이었습니다. 강남구는 드론과 위성측량을 통해 구축한 ‘좌표 기반의 디지털 지적도’가 어떻게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고, 이것이 다시 오차 없는 ‘재산 세 부과’로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시연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남의 복잡한 빌딩 숲이 3 차원 디지털 지도로 구현되고, 클릭 한 번에 해당 토지의 세금 정보가 산출되는 순간,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이 접목된 행정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이고 빠릅니다.” 세계은행의 토지 행정 전문가 스타마티스 (Stamatis) 씨는 연신 메모하며 강남구의 데이터 통합 역량에 주목했습니다.